

자기를 속이지 말자

지루한 장마가 걷히고 활짝 개인 날씨가 가을을 재촉하는 계절을 맞이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천근의 짐을 짊어진 것처럼 무겁기만 하다. 화려한 앞날을 향해 줄달음치는 이 겨울의 주변에는 무엇 때문인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중압감으로 가득 차있는 것만 같다.

개헌안이란 문제를 둘러싸고 매일 신문에는 성명서가 나오고, 현실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새로운 마술적인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한 정치적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할 때면 언제나 자기 입장을 견고케 하는 이론을 전개하기 마련이다. 그것이 현실론이든 이상론이든 완벽하게 둘로 갈라져서 어쩔 수 없는 판국을 초래하는 일이 가끔 있지만 현실론 속에도 언제나 원칙과 명분을 따지는 이상론이 섞여 있고, 이상론 속에도 현실의 문제성을 토대로 한 현실적인 관찰이 섞여 있음을 볼 때 한 마디로 이상론이다, 현실론이다 라고 간단히 처리해 버릴 수 없는 것을 알게 된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의 입장을 파악함이 없이 이상론이나 현실론을 부른짓는 데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점에서 지나간 몇해 동안 쓴잔을 마셨다고 하겠다. 어떤 정치적 문제의 본질과 성격을 채 분석하지 못한 채 찬성 반대의 논쟁 속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교회가 국가 발전과 사회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기원하고 헌신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프로그램에 순응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고차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성의 회복이 모든 정치, 경제 체제에 선행되는 기본적인 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경제 질서의 확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만일 교회가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정치적 이슈에 직접 가담할 때에 스스로 속이는 결과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고 교회는 어떤 정치적 이슈에도 늘 초연하게 처신을 하고 오블관의 태도를 취하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 문제의 차원을 넘어선 비정치적인 면, 비경제적인 면에 착안하고 이에 대하여 소신있는 발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치적인 문제가 터져나올 때마다 직각적인 반응을 표시하기에 앞서 이에 대처하는 교회 자체의 자세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판단과 행동을 지향하는 교회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미숙한 사고와 미숙한 판단 그리고 미숙한 행동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의 쫓점을 벗어나는 일이라 하겠다.

국가의 문제가 위급하고 증대해질수록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값싼 현실론에 휩쓸려 들어 가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원칙, 이상만을 주장하지도 않는 입장에서 최후의 판단을 스스로 책임지고 내리는 성숙한 태도 결정이 문제 해결의 최선의 길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일 깊은 관심사는 교회의 성숙성, 즉 자기를 속이지 않고, 또 남을 속이지 않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과감한 성숙성을 양양하는 일이다. 교회 정치의 배후에는 언제나 자기 기만과 미숙한 고집이 깔려있음을 본다. 총회를 앞둔 각 교파에서는 지금 한창 정치적인 조절을 하기에 바쁜 모양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움직임도 미숙한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체념 속에서 인간적인 성숙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